

얼굴의 아름다움 지각요인에 관한 연구: 20대 남녀를 중심으로

박 은 아[†]

서 현 숙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각할 때 고려하는 얼굴의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얼굴의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FGI와 자유기술식 조사를 통해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선행 연구들의 척도를 참조하여 미(美)평가 형용사 척도를 구성하고, 남녀 대학생 461명이 일반인 20대 남녀사진을 각각 한 장씩 보고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정하였는데, 총 92장의 사진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물리적 특성요인은 7개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특성요인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4개 요인, 여성의 경우는 5개 요인으로 여성의 아름다움 지각의 심리적 요인이 남성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남성의 경우는 '단정하고 흰칠함', '옛되고 여림', '편하고 선해보임(-)' 요인이 유의미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단아하고 단정함',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섹시하고 서구적임' 요인이 유의미한영향을 미쳤으며 '깜직하고 귀여움'과 '편하고 따뜻함' 요인은 전반적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도 남녀 사진에 대하여 전반적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물리적,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어서 아름다움 지각에서의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주제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 외모 아름다움, 얼굴, 얼굴의 물리적 특성, 얼굴의 심리적 특성, 남성미, 여성미

† 교신저자 : 박은아,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eunap@daegu.ac.kr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타인의 성격과 능력을 추론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까지 유추한다. 또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남승진, 2002). 외모에 관해 그동안 이루어진 학문적인 접근은 크게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 과정에서 외모 매력이 발휘하는 후광효과에 관한 연구와 외모의 매력성(attractiveness) 자체를 연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외모 매력의 후광효과 연구들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여 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 뿐 아니라 배우자나 애인을 선택하는 상황,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 대한 평가에도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가 높을 것으로 지각한다고 알려져 있다(김혜숙, 1993; Barocas & Kroly, 1972; Joseph, 1982 등). 두 번째로 외모 매력성 그 자체를 다룬 연구들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방법에 따라 형용사 등의 언어 척도를 이용한 아름다움 지각차원에 관한 연구와 아름다운 외모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외모의 지각차원을 밝힌 연구들은 주로 사람의 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 척도를 구성하여 인상 형성의 차원 혹은 아름다움 지각의 차원을 밝혀내고, 이 차원들 중 전반적인 매력성을 결정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박수진 등, 2001; 이경성, 한덕용, 2003; 김한경, 박수진, 정찬섭, 2004 등). 이 연구들이 발견한 아름다움 지각의 차원은 연구자에 따라서 2개에서 4개 정도의 차원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동양적인-서구적인, 지적인-맹

한, 날카로운-부드러운, 여성적인-남성적인, 선한-사나운 등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이한 차원이 나타난 이유는 각 연구자들이 사용한 연구방법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원인으로 연구자마다 추출된 차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이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외모를 보면서 지각하는 차원이 단일하거나 한두 가지의 특성 차원으로 요약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외모를 지각하는 차원이란 아름다움 혹은 얼굴 인식의 기준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타인의 외모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와 같이 단일 차원에서 정도의 차이로만 지각되지 않으며, 단아함, 청순함, 섹시함, 귀여움 등 다양한 특성의 아름다움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아름다움 혹은 매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아름다움 차원 연구 혹은 매력도 연구는 아름다움의 세부 내용을 단지 한두 개의 차원으로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름다움의 세부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연구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외모 특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는 '아름다움'의 문제는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연구의 대상 또한 대부분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꽃미남'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남자들도 다양한 종류의 외모가꾸기 행동을 하는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대에 아름다운 외모는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성영신, 박은아, 김운섭과 이주원(2009)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름다운 외모의

효과는 남성에게서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얼굴¹⁾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도록 하는 생김새(물리적)의 특성과 이를 통해서 주관적이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의 특성들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특성은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물리적, 심리적 특성들이 최종적인 아름다움을 지각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매력적인 외모 특성에 관한 연구

사람들은 흔히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더 호의적이고, 지적이며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 신체 매력이 주는 이런 후광효과는 배우자나 애인을 선택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타난다(김혜숙, 1993; 성영신 등, 2009; Barocas & Kroly, 1972; Langlois, Kalakanis, Rubentein, Larson, Hallam & Smoot 2000). 김혜숙(1993)은 매력 수준이 각기 다른 남녀의 사진을 대상으로 신체 매력의 후광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였다. 매력수준이 저, 중, 고인 세 가지 사진을 대상으로 응답자에게 성격 특성 및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상황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는데, 남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후광효과가 나타나서,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온정적이고 사교적이며 자신감 있고 외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가정과 직장생활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은 역할 수행을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데이트나 결혼상대로서 더 좋게 평가했다. 그러나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력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 낮았다. 즉, 매력적인 여자일수록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나 덜 따뜻하고 더 허영심이 많다고 지각하였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도 매력수준이 중간인 여성보다 평가가 더 낮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영신 등(2009)의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외모 매력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는 매력의 후광효과가 나타나는 삶의 영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광범위하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한편, 대상의 외모 매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남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나 결혼상대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의 야망, 부지런함 등 성격측면을 높게 평가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외모 매력을 더 중요시한다(이경성, 한덕웅, 2003; Reis, Wheeler, Spiegel, Nernis, Nezelek & Perri, 1982; Buss, 1993 등). 그래서 매력적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선택된다(Berry & Miller, 2001).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는 매력적인 종업원이 물건을 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종업원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고,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욱, 설상현, 황경미, 2003). 이 같은 결과

1)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해보면 ‘외모’의 지각차원, 외모의 아름다움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실제로는 얼굴 인상을 평가하거나 얼굴의 아름다움 차원을 밝히는 등 ‘얼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외모(appearance)는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외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얼굴의 아름다움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라는 용어 대신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을 명확히 지칭하고자 한다.

들은 매력적인 외모, 아름다운 외모의 영향력은 배우자 선택과 같이 외모가 수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성 관계’ 상황에서뿐 아니라 외모가 수행 결과와 관련이 없는 ‘직무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외모의 매력, 아름다움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외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인 능력 평가와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 지각에 관한 연구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는가를 다룬 ‘아름다움 지각’에 관한 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외모의 생김새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수치화한 생체계측학적 연구와 외모를 지각하는 차원을 언어적으로 측정하여 밝힌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외모의 생체계측학적 연구는 미인 얼굴의 물리적 특징을 수치화하거나 여러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외모의 물리적 특징을 통해 아름다운 얼굴 생김새의 기준을 밝혀내는 것이다. 미인 얼굴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생체계측학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 미인의 얼굴은 눈과 눈 사이 안쪽 간격과 눈 크기가 같고, 입술 폭은 양쪽 눈동자 사이의 간격과 같으며 귀밑에서 턱 끝에 이르는 선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가름한 계란형인 것으로 밝혀졌다(위성신, 함기선, 이재웅, 조용진, 1981). 서란숙(2007)은 미인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미인상을 분석한 후, 현대 한국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미인의 얼굴은 쌍꺼풀진 큰 눈과 오뎅한 비선코, 크고 도톰한 입술에 가름한 계란형의 얼굴이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Galton에 의해 처음 제안된 미인에 대한 평균

가설(average hypothesis)은 여러 명의 얼굴을 합성한 ‘평균 얼굴’을 개별 얼굴보다 더 아름답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즉, 한 집단에 속한 여러 얼굴들을 합성하면 얼굴의 세부 요소가 집단이 가진 보편적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 명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얼굴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즉 친숙한 얼굴로 지각하게 되고 그 결과 아름답다고 인식하게 된다(김한경, 박수진, 정찬섭, 2004; Lanlois & Roggman, 1990).

두 번째로 외모(얼굴)의 지각 차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 인상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수집하여 대상의 외모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인상형성 차원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인의 얼굴을 지각할 때 어떠한 차원으로 지각하는지 연구하였다. 이수정과 유재호(2001)는 20대 여성 얼굴 400장의 사진에 대하여 인상평가 형용사 20개로 평정한 결과 두 개의 차원을 도출하였는데, ‘날카로운/서구적인 vs. 맹한/동양적인’ 차원과 ‘여성스러운/귀여운 vs. 남자같은/강인한’ 차원이다. 이경성(2002)도 형용사 목록을 가지고 인상의 지각차원을 연구하였는데, ‘사납다-순하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경박하다-점잖다’의 네 가지로 나타났다.

박수진 등(2001)도 얼굴 지각의 차원을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들은 얼굴의 물리적(생김새) 특징에 따라서 어떤 인상(연구자들은 ‘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을 갖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즉, 20대 일반인 여성 379명과 연예인 97명의 얼굴에 대하여 36개 얼굴 내부 특징점을 찾아내고, 그 점 사이의 거리값을 측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5차원 공간상에 분포시

키는 방법으로 얼굴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 얼굴을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각 유형별 대표 얼굴사진에 대하여 32개 형용사 척도로 인상(감성)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날카롭다-부드럽다’, ‘옛되다-성숙하다’의 두 차원이 도출되었다. 또한, 박수진, 한재현과 정찬섭(2001)은 얼굴의 물리적 36개 요인점에 변화를 가하면서, 얼굴 특징이 변화함에 따라 인상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는데, 눈썹꼬리의 처진정도, 입술길이, 눈 사이 간격, 눈길이, 인중 상하 길이, 눈썹 두께 등이 ‘날카롭다-부드럽다’의 차원을 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간부 상하길이, 이마 상하 길이, 콧구멍 좌우 폭 등이 ‘옛되다-성숙하다’ 차원을 1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형용사 목록을 이용하여 인상지각의 차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아름답다’, ‘예쁘다’ 두 단어는 다른 형용사들과 모두 상관이 높고 어느 한 차원에 속하지 않아서는 것으로 드러나, 이 두 형용사는 인상의 차원을 추출하는 분석 과정에서 제거시켰다. 이 결과는 ‘예쁘다’, ‘아름답다’의 두 형용사는 특정한 인상(감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기보다는 다양한 인상(감성) 어휘들과 모두 상관이 높은 일종의 다의어로서, 특정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 얼굴에 대한 총체적 평가의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얼굴에 대한 지각차원을 바탕으로 어떤 차원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지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이경성과 한덕웅(2003)은 남성이 어떤 얼굴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연구하였다. 여성 사진 126장에 대하여 이수정과 유재호(2001)가 선행 연구에서 밝힌 ‘사납다-순하다’,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 ‘경박하다-점잖다’의 차원과 전반적 매력을 평

정하게 한 후 어떤 차원이 전반적 매력과 관련되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들이 여성의 매력성을 지각할 때 ‘남자답다-여성스럽다’, ‘맹하다-이지적이다’의 두 차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경 등(2004)도 여성 얼굴의 물리적 특징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얼굴의 감성적 특징을 찾아냈는데, 서구적이다, 섹시하다, 차갑다, 야무지다, 성숙하다, 여리다, 날카롭다로 구성된 ‘샤프’ 요인과 따뜻하다, 부드럽다, 옛되다, 참하다, 청순하다로 구성된 ‘소프트’ 요인이 얼굴 감성 변량의 약 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 중 ‘샤프’ 요인이 전반적 아름다움의 43.2% 설명하고 ‘샤프’ 요인의 값이 클수록 얼굴이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얼굴의 인상 차원을 도출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얼굴의 물리적 특징들을 통해 인상 형성이 이루어지고, 인상 지각의 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두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로 세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인상 지각의 차원들, 혹은 아름다움 지각의 차원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 지각의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차원을 밝혀내었는데, 이들 다양한 차원들은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면도 있지만 약간씩 상이하다. 이런 결과는 얼굴을 지각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단순히 한 두 개의 차원으로 축약될 수 없으며 개념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몇 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문제

지금까지 고찰한 외모의 아름다움 평가 차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얼굴 각 부분을 측정하여 미인의 얼굴 특징을 계측학적으로 찾아내거나, 다양한 형용사로 인상(감성적 느낌)을 평가하여 아름다운 외모의 다양한 차원을 밝혀내었는데, 이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매력성이라는 단일 차원에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아함, 청순함, 섹시함, 세련됨 등 다양한 측면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외모의 생김새, 즉, 물리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지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감성 반응이며, 총체적인 아름다움 평가 역시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다(박수진, 한재현, 정찬섭, 2001). 그런데, 아름다움 지각과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얼굴의 생김새의 세부 요소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아름다움 특성을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기술할 때 ‘눈이 가로로 5cm이다’, ‘목의 두께가 10인치이다’와 같이 생김새의 특징 그대로를 기술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지각한 특성을 ‘눈이 크고 둥글다’, ‘코가 날카롭다’ 등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생김새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깔끔하다’, ‘단아하다’, ‘훤칠하다’, ‘시원하다’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평가를 내린다. 박수진 등(2001), Berry와 McArthur(1985)에 따르면 얼굴 상단부가 길고, 콧구멍이 좁을수록 ‘귀엽거나 여러 개’ 보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성숙하게’ 보이며, 또한 섹시하거나 도발적인 느낌, 이지적이고 참한 느낌 등 타인의 외모를 통해서 느낌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얼굴의 세부 요소

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얼굴 생김새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 아름다움을 지각할 때에, 단순히 물리적 특성 그 자체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특성들의 조합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특징(감성 혹은 인상)들을 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얼굴의 물리적 특징만을 분석해서는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다양한 느낌, 즉 심리적 특징들을 파악해 낼 수 없고, 단순히 심리적 지각 차원만을 밝혀서는 그것이 외모의 어떤 특성에서 유발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며, 이 두 개의 측면, 즉 물리적 특징과 그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에 지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의 특성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지각하는 생김새, 즉 물리적 특성들이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각하도록 만들고, 이들 심리적 특성들을 통해 전반적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름다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성의 외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문제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어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Cash, Winstead & Janda, 1985; 1986). 그러나 외모 매력성의 후광효과가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남성들 사이에서도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여성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eis, et. al., 1982; 이경성, 2002; 성영신 등 2009). 또한, 여성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특성 요인이 남성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성영신, 박은아, 서현숙, 2008)에서 우리는 여성과 남성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특성 요인이 다르게 구성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지각할 때, 얼굴 생김새의 특징을 ‘물리적 특성’이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각하는 얼굴에 대한 주관적인 감성(인상)을 ‘심리적 특성’이라고 명명하여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에 대하여 느끼는 아름다움 정도는 대상의 얼굴에서 지각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아름다움을 지각하도록 하는 얼굴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 대상의 성별에 따라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되는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아름다움의 세부 요인들을 밝히고, 이것이 전반적 아름다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녀 각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성과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 남성과 여성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얼굴 생김새(물리적 특성)를 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얼굴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각하여, 전반적 아

름다움을 평가하는 가설적 구조는 타당한가?

연구문제 4. 평가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예비 조사

미(美)평가 형용사 척도 구성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어떤 특성을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응답자들에게 남녀의 상반신 사진을 제시한 후 자유기술 형식으로 구성된 개방형 조사와 반구조된 FGI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터넷의 광고모델 관련 사이트에서 남녀 모델 지망생 사진 총 38장을 수집한 후 표정, 노출정도, 화장 및 악세사리 등을 고려하여, 남녀 각각 10장씩 총 20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사진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옷 : 어깨가 드러나지 않은 옷
- 표정 : 입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약한 미소
- 자세 : 가슴 기준으로 상반신이 정면을 향하고 있을 것

대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사진을 보고,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질문지에는 구체적으로 각 사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외모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기술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과 ‘외모가 잘생긴 남성’의 이미지를 각각 기술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생

13명을 3집단으로 구성하여 FGI를 실시하였는데, 선정된 각 사진을 보면서 개방형 질문지에서와 같은 내용의 질문과 각 사진을 자세히 살펴 보면서 얼굴의 어떤 요소들에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지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조사와 FGI 결과 ‘얼굴형이 가름한’, ‘눈이 큰’, ‘코가 날카로운’, ‘청순한’, ‘흰칠한’, ‘귀여운’ 등 얼굴을 표현하는 형용사 153개를 수집하였다.

형용사의 적절성 평가

수집된 153개의 형용사 분석 결과, 형용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얼굴 생김새 자체를 설명하는 ‘눈이 큰’, ‘입술이 도톰한’ 등 외모의 ‘물리적 특징 + 형용사’ 구성된 용어와 외모 전체에서 느껴지는 느낌 혹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흰칠한’, ‘섹시한’ 등의 ‘형용사’ 자체인 용어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외모의 물리적 특징을 제외한 ‘성격 형용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각하는 얼굴 특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얼굴의 물리적 특징 + 형용사’로 구성된 용어를 사람들이 지각한 대상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얼굴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혹은 느낌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심리적 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람들이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평가할 때는 생김새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특성을 지각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얼굴의 물리적 특징+형용사’로 구성된 용어를 물리적 특성 형용사,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이미지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심리적 특성 형용사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예비 조사에서 수집된 얼굴의 물리적·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153개를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형용사 목록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20개의 형용사를 추가하여, 얼굴 특성을 평가하는 형용사 목록을 총 173개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173개의 형용사에 대하여 의미가 중복되는(예: 어려보이는-젊은) 것과, 반대 차원의 형용사(예: 마른-뚱뚱한) 중 하나를 제외하여 98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이 형용사들을 가지고 남녀 대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얼굴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형용사의 적절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적절성 평가 결과 응답 평균이 2.5 이하인 문항들은 형용사 목록에서 삭제했는데, 이는 해당 형용사가 인물의 외모를 표현하는 속성으로서 점수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자 73개, 여자 74개 형용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

자극물 선정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구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사진은 일반인의 증명사진이다. 연예인 또는 연예인 지망생 사진의 경우는 이미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표정, 자세, 화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의 물리적 특징 자체에서 아름다움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들이 추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있는 스튜디오 홈페이지의 취업 증명사진 게시판을 통해 수집된 사진 약 200장 중에서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사진선정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자들이

남녀 각각 46장씩 최종 선정하였다.

질문지 구성

질문지는 평가 대상의 전반적인 얼굴의 아름다움 정도를 평가하는 3문항(10점 척도, 남: 매력적이다/잘생겼다/멋있다, 여: 매력적이다/아름답다/예쁘다)과 얼굴의 물리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해 평가하는 형용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형용사 목록은 여성 74문항, 남성 73문항으로 물리적 특성 형용사는 남녀 모두 34문항이고, 심리적 특성 형용사는 여성 40개, 남성 39개로 구성되었다.

하나의 질문지는 남녀 사진을 각각 한 장씩 총 두 사람에게 대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는데, 동일한 문항을 두 개의 사진에 대해 반복적으로 평가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40개의 필러 문항을 두 개의 인물 평가 중간에 위치시켰다. 형용사 문항은 순서효과를 고려해 무작위로 배열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평가 대상자(사진)와 연령대가 유사한 20대 남녀 대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한 사람의 응답자는 남녀 사진 한 장씩 총 두 장의 사진을 평가하였는데, 남녀 사진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남자와 여자 사진을 번갈아 제시함으로써 순서 효과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남녀 사진 각각에 대해 총 461명(남: 202명, 여: 259명)이 응답하였다.

결 과

얼굴 지각의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

각 평가 대상의 전체적인 얼굴의 아름다움을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에 남자 사진에 대한 매력도 평균은 5.15점($SD=1.95$), 여자 사진 평균은 5.56점($SD=1.99$)으로 나타나 평가 대상의 외모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얼굴을 평가하는 특성 요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리적 특성 형용사(34개)와 심리적 특성 형용사(남 39개, 여 40개) 각각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해 정보 손실을 줄이고, 요인을 직교 회전 하였다. 분석과정 중 초기적재값이 낮거나(.30 이하) 여러 요인에 적재치가 분포되어 있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각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 1 이상)과 스크리도표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최종적으로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남성 얼굴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1), 총 7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약 63%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눈선명함, 눈썹, 눈꼬림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눈크기와 모양’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얼굴형 가름, 턱선 가름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얼굴선’ 요인, 3요인은 코높음, 코오뎅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코높이와 모양’이며, 4요인은 피부결과 색, 5요인은 입크기와 입술색, 6요인은 ‘눈썹’, 7요인은 ‘머리결과 모양’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는 남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눈’, ‘얼굴선’, ‘코’, ‘피부’, ‘입’, ‘눈썹’, ‘머리 모양’과 같이 외모의 물리적 특성 대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남성의 얼굴을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서, 총 4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남성 얼굴의 물리적 특성 요인분석 결과 (30문항)

문항	눈크기와 모양	얼굴선	코높이와 모양	피부결과 색	입크기와 입술색	눈썹	머리결과 모양	공통성
눈선명함	.820							.723
눈크름	.825							.703
눈또렷함	.749							.650
눈등금	.724							.531
이목구비 뚜렷	.701							.675
눈매 또렷	.680					.319		.626
이목구비시원	.675							.653
얼굴형 가름		.822						.725
턱선 가름		.790						.676
얼굴작음		.776						.657
목 가늠		.646						.496
목 김		.571						.423
코 높음			.828					.764
코 오똑			.780					.753
코 날카로움			.633					.464
코 크름			.579					.447
피부고음				.814				.756
피부 좋음				.824				.803
피부 깨끗				.782				.743
피부 하얗				.662				.562
입 크름					.661			.482
입술선명					.705			.621
입술도톰					.640			.470
입술붉음					.671			.566
눈썹진함						.890		.851
눈썹선명						.878		.840
헤어단정							.768	.683
머릿결 좋음							.717	.586
헤어스타일 자연스러움							.705	.549
고유치	4.452	3.060	2.914	2.606	2.104	1.963	1.896	
설명변량 %	14.839	10.199	9.713	8.687	7.013	6.543	6.319	
누적변량 %	14.839	25.038	34.751	43.438	50.450	56.993	63.313	

* 주: 요인 점수가 .30 이상인 값만 제시함.

표 2. 남성 얼굴의 심리적 특성 요인분석 결과 (32문항)

문항	단정하고 흰칠함	옛되고 여림	강하고 남성적임	편하고 선해보임	공통성
단정한	.763				.595
흰칠한	.738				.623
깔끔한	.735				.582
준수한	.710				.618
자신감 있는	.608		.374	.324	.617
세련된	.600	.344			.565
지적인	.585				.483
당당한	.575				.590
샤프한	.534		.381	.328	.451
부드러운	.462		.310		.610
옛된		.761		.406	.643
청순한		.741			.577
여린		.715			.620
귀여운		.687			.585
신선한		.618	.388	.322	.573
참한	.328	.598		.351	.603
순수한		.580		.475	.587
발랄한		.579	.338		.476
강한			.741		.622
개성 있는			.681		.549
돌보이는		.346	.633		.564
남성적인	.364		.622		.551
느끼한			.577		.467
시원한	.489		.511		.529
야무진	.327		.497		.361
편한		.320		.726	.632
선해 보이는				.719	.682
자연스러운				.666	.552
밝은				.630	.543
따뜻한	.330	.380		.602	.622
생기 있는	.424			.489	.552
서구적인	.318	.310	.317	-.416	.471
고유치	5.440	4.922	3.891	3.841	
설명변량 %	16.999	15.381	12.160	12.004	
누적설명변량 %	16.999	32.380	44.541	56.544	

* 주: 요인 점수가 .30 이상인 값만 제시함.

첫 번째 요인은 ‘단정하고 흰칠함’으로 단정한, 흰칠한, 준수한, 세련된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요인은 ‘옛되고 여림’ 요인은 옛된, 청순한, 여린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요인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강한, 개성 있는, 남성적인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강하고 남성적임’ 요인이고, 4번째는 ‘편하고 선해 보임’ 요인으로 편한, 선해 보이는, 자연스러운, 밝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결과에서 남성의 얼굴을 지각하는 요인이 단순히 남성적인가 아닌가의 단일 요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대의 젊은이들은 남성의 얼굴에 대해서도 여성적인 특성(예, 옛되고 여림 등)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여성 얼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물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64%를 설명했다(표 3). 각 요인은 ‘눈크기와 모양’, ‘얼굴선’, ‘코높이’, ‘머리결과 모양’, ‘피부결과 색’, ‘눈썹’, ‘입크기와 입술모양’으로 요인의 구성은 남성과 같다. 남성의 물리적 특성요인과 비교해보면, 7개 요인 중 코와 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하며, 코의 경우 ‘코가 크다’, ‘코가 날카롭다’ 두 문항이 여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입의 경우에도 ‘입이 크다’, ‘입술이 도톰하다’의 두 문항만 나타났다.

여성 얼굴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표 4), 5개 요인이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약 61%를 설명하였다. 5개 요인은 ‘편하고 따뜻함’, ‘섹시하고 서구적임’, ‘단

아하고 단정함’,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깜찍하고 귀여움’이다. 1요인인 ‘편하고 따뜻함’ 요인은 편한, 선해 보이는, 여린, 옛된 등의 문항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소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2요인인 ‘섹시하고 서구적임’ 요인은 도발적인, 섹시한, 서구적인, 시원한 등의 문항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섹시하고 서구적임’ 요인은 남성의 심리적 특성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성 얼굴을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에서는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섹시하고 서구적임 요인을 구성하는 ‘도발적인’, ‘섹시한’ 등의 문항이 남성 얼굴에 대해서는 평가값이 2.5 이하로 낮아, 남성 얼굴을 지각할 때의 속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인인 ‘단아하고 단정함’은 흔히 말하는 여성적 이미지의 문항들로서 우아한, 참한, 깔끔한, 청순한 등의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요인데, 이는 현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커리어우먼의 지적이고 당당한 활동적인 여성 이미지이다. 다섯 번째 요인은 ‘깜찍하고 귀여움’으로, 깜찍한, 발랄한, 생기 있는 등의 형용사들로 이루어졌다.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대상자의 얼굴을 보면서 먼저 물리적 특성을 지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특성을 느끼며 그것이 전반적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적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표 3. 여성 얼굴의 물리적 특성 요인분석 결과 (26문항)

문항	눈크기와 모양	얼굴선	코높이	머릿결과 모양	피부결과 색	눈썹	입크기와 입술모양	공통성
눈 큼	.813							.702
눈 선명함	.794							.718
눈 또렷함	.790							.726
이목구비 뚜렷	.642		.444					.679
눈 둥근	.583							.475
이목구비 시원	.548		.472					.618
턱선 가름		.740						.668
얼굴형 가름		.736		.354				.726
얼굴 작음		.669						.544
목 가늠		.626			.307			.569
목 김		.452			.381			.497
코 오뚝			.837					.818
코 높음			.825					.777
헤어 단정함				.742				.656
머릿결 좋음				.715				.669
헤어 자연스러움				.679				.567
피부좋음					.748			.737
피부깨끗					.724			.699
피부고음					.718			.719
피부하얀					.686			.499
눈썹진함						.855		.774
눈썹 선명함						.852		.800
입 큼							.776	.650
입술도톰							.732	.623
고유치	3.425	2.490	2.185	2.138	2.713	1.673	1.302	
설명변량 %	14.270	10.374	9.105	8.910	11.303	6.970	5.426	
누적설명 변량 %	14.270	35.947	45.052	53.962	25.573	60.932	66.358	

* 주: 요인 점수가 .30 이상인 값만 제시함.

표 4. 여성 얼굴의 심리적 특성 요인분석 결과 (38문항)

문항	편하고 따뜻함	섹시하고 서구적임	단아하고 단정함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감쪽하고 귀여움	공통성
편한	.802					.667
따뜻한	.794					.691
선해 보이는	.761		.302			.726
부드러운	.752					.704
여린	.650				.303	.613
순수한	.620				.374	.615
옛된	.593				.513	.626
자연스러운	.537					.440
도발적인		.819				.703
섹시한		.772				.609
서구적인		.714				.578
샤프한	-.302	.636				.538
돋보이는		.628				.555
훤칠한		.611				.533
신선한	.406	.573				.573
시원한		.569		.454		.555
여우같은	-.432	.539				.506
강한	-.470	.504		.320		.595
개성 있는		.485	.384		.318	.529
단아한			.776			.708
단정한			.744			.676
참한			.717			.652
여성스러운			.703			.612
우아한		.345	.688			.659
깔끔한			.687			.586
청순한	.437		.544		.316	.597
세련된		.428	.539	.389		.659
준수한		.424	.480			.482
당당한				.804		.744
자신감 있는				.735		.693
야무진		.323		.603		.492
밝은	.375			.581	.385	.649
지적인			.462	.557		.561
감쪽한					.771	.701
귀여운	.317				.767	.738
발랄한					.701	.726
생기 있는				.408	.546	.685
아담한	.376			.481	.466	.452
고유치	5.710	5.303	5.237	3.654	3.522	
설명변량%	15.025	13.955	13.782	9.617	9.269	
누적설명변량%	15.025	28.981	42.763	52.380	61.649	

* 주: 요인 점수가 .30이상인 값만 제시함.

얼굴의 물리적 특성을 외생변인으로, 심리적 특성과 전반적 아름다움을 내생변인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 모형의 적합성 지수는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RMR, GFI, AGFI와 증분적합지수인 CFI로 그 수용기준은 김대업(2008)이 제안한 경험적 기준에 따랐다(RMSEA, RMR ≤ .08, GFI, AGFI, PGFI, CFI ≥ .09).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모두 직접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구조의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각 요인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표 5),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이 .601에서 .908 사이로 나타나 신뢰도를 평가할 때 수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기준인 .60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요

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내생변인인 ‘단정하고 흰칠함’, ‘옛되고 여림’, ‘강하고 남성적임’, ‘편하고 선해보임’, ‘전반적 아름다움’이 외생변인인 ‘눈크기와 모양’, ‘얼굴선’, ‘피부결과 색’, ‘입크기와 입술색’, ‘눈썹’, ‘머릿결과 모양’의 요인과 1개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상관을 보였다.

남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모든 수치가 통상적인 수용기준을 만족시켰다($\chi^2=3.539$, $df=6$, $p=.739$, $RMSEA=.000$, $RMR=.012$, $GFI=.999$, $AGFI=.983$, $CFI=.999$).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중 어떠한 모형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모형의 χ^2 값을 t 검증한 결과 t 값이 4.364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유도 4의 χ^2 값인 9.4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대안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합도 지수로서 χ^2 값은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지만, 자유도는 큰 것이 간결성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모형보

표 5. 얼굴 지각의 물리적·심리적 특성의 요인별 신뢰도(남성)

	요인	문항수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물리적 특성	눈크기와 모양	7	.897	4.199 (.076)
	얼굴선	5	.805	3.889 (.075)
	코높이와 모양	4	.764	4.085 (.247)
	피부결과 색	5	.605	4.287 (.293)
	입크기와 입술색	4	.667	4.082 (.018)
	눈썹	2	.908	4.831 (.000)
	머릿결과 모양	3	.671	4.262 (.377)
심리적 특성	단정하고 흰칠함	10	.890	4.438 (.232)
	옛되고 여림	8	.872	3.289 (.113)
	강하고 남성적임	7	.800	3.655 (.115)
	편하고 선해보임	7	.780	3.994 (.351)

표 6.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특성요인에 대한 각 모형의 적합도(남성)

	χ^2	df	p	RMR	GFI	AGFI	RMSEA	CFI
연구모형	3.539	6	.739	.012	.999	.983	.000	.999
대안모형	5.643	2	.060	.013	.998	.920	.063	.998

* $p < .001$ ** $p < .05$

다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남성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얼굴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특성을 느끼고 그것으로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얼굴의 심리적 특성 중 전반적 아름다움에 영향을 주는 특성은 ‘단정하고 흰칠함’(0.747)이 가장 크고, ‘옛되고 여림’(0.132)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강하고 남성적임’ 요인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편하고 선해보임’이 전반적 아름다움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점은 의

외의 결과이다. 또한, 심리적 특성 지각에 7개 물리적 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눈크기와 모양, 얼굴선, 머리결과 모양이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서 중요한 특성으로 밝혀졌다. 단정하고 흰칠함을 지각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눈크기와 모양’이고, ‘옛되고 여림’을 느낄 때에는 얼굴선과 피부결과 색이 중요하며, ‘강하고 남성적임’을 느낄 때에는 눈크기와 모양, 코높이와 모양, 눈썹이 주요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편하고 선해보임’에는 피부결과 색, 머리결과 모양, 눈썹이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요인을 알아보았다.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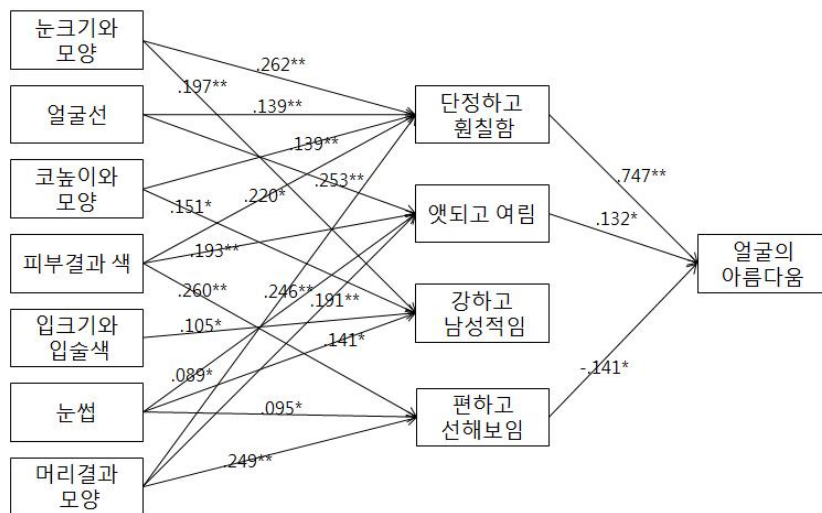


그림 1. 남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 구조(연구모형)

표 7.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남성)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눈크기와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함	.262	.031	6.811**
얼굴선	→ 단정하고 흰칠함	.139	.030	3.967**
코높이와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함	.139	.034	3.807**
피부결과 색	→ 단정하고 흰칠함	.220	.043	6.007**
머릿결과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함	.246	.031	6.787**
얼굴선	→ 앳되고 여림	.253	.046	5.467**
피부결과 색	→ 앳되고 여림	.193	.066	4.002**
머릿결과 모양	→ 앳되고 여림	.191	.047	4.068**
눈썹	→ 앳되고 여림	.089	.033	1.982*
눈크기와 모양	→ 강하고 남성적임	.197	.043	3.893**
코높이와 모양	→ 강하고 남성적임	.151	.046	3.144*
입크기와 입술색	→ 강하고 남성적임	.105	.047	2.247*
눈썹	→ 강하고 남성적임	.141	.030	3.146*
피부결과 색	→ 편하고 선해보임	.260	.062	5.401**
머릿결과 모양	→ 편하고 선해보임	.249	.045	5.318**
눈썹	→ 편하고 선해보임	.095	.032	2.126*
단정하고 흰칠함	→ 전반적 아름다움	.747	.176	8.631**
앳되고 여림	→ 전반적 아름다움	.132	.082	2.808*
편하고 선해보임	→ 전반적 아름다움	-.141	.106	-2.446*

* $p < .05$, ** $p < .001$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각 요인의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물리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입크기와 모양’ 요인을 제외한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731에서 .900으로 나타나 수용 기준인 .60 이상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각 요인간 상관분석 결과, ‘입크기와 입술모양’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이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부록 참조).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해서도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두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모형의 χ^2 값을 t 검증하였다.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든 수치가 통상적인 수용기준을 만족시켰다(표 8 참조). 또한, 연구모형과 대안 모

표 8. 얼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특성 요인에 대한 각 모형의 적합도 (여성)

	χ^2	df	p	RMR	GFI	AGFI	RMSEA	CFI
연구모형	4.413	7	.731	.011	.999	.981	.000	.998
대안모형	3.468	3	.325	.010	.999	.965	.018	.978

* $p < .001$ ** $p < .05$

형의 χ^2 값을 t 검증한 결과, t 값이 8.34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자유도 4의 χ^2 값인 9.49보다 작았다. 이는 절대적합도 지수로서 χ^2 값은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지만, 자유도는 큰 것이 간결성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성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에도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심리적 특성을 지각하고 그것으로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여성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단아하고 단정함’(.854),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235), 색

시하고 서구적임’(.206)이며, 깜찍하고 귀여움과 편하고 따뜻함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요인의 경우 전반적 아름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자신 있고 당당한 인상이 아름다움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상을 깨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표 9 참조). 얼굴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심리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눈크기와 모양’, ‘얼굴선’, ‘피부결과 색’이며, ‘얼굴선’ 요인은 많은 심리적 특성 요인에 영향을 주는 반면, ‘입크기와 입술모양’은 어떠한 심리적 특성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입크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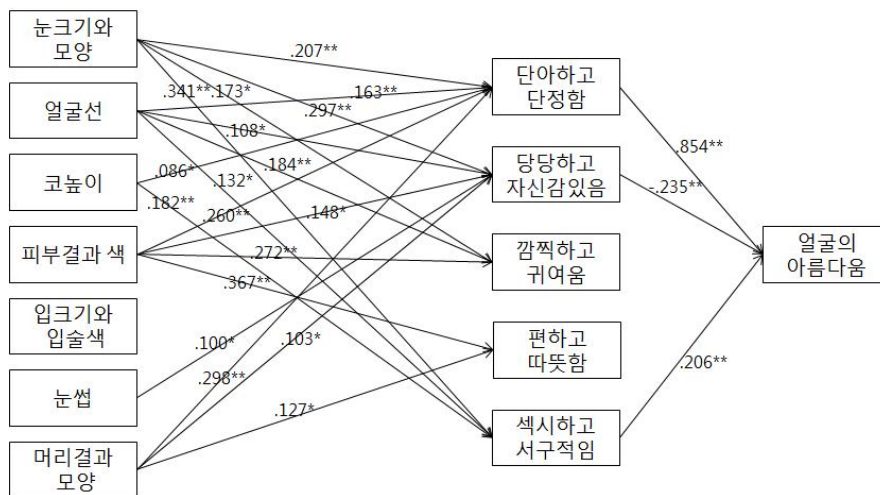


그림 2.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연구모형)

표 9.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여성)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눈크기와 모양	→ 단아하고 단정함	.207	.040	5.207**
얼굴선	→ 단아하고 단정함	.163	.038	4.674**
코높이	→ 단아하고 단정함	.086	.029	2.479*
피부결과 색	→ 단아하고 단정함	.260	.036	7.282**
머릿결과 모양	→ 단아하고 단정함	.298	.034	8.141**
눈크기와 모양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297	.047	6.118**
얼굴선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08	.047	2.417*
피부결과 색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48	.044	3.250*
눈썹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00	.034	2.465*
머릿결과 모양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03	.041	2.239*
눈크기와 모양	→ 깜찍하고 귀여움	.173	.058	3.278*
얼굴선	→ 깜찍하고 귀여움	.184	.059	3.784**
피부결과 색	→ 깜찍하고 귀여움	.272	.055	5.492**
눈크기와 모양	→ 섹시하고 서구적임	.341	.051	6.542**
얼굴선	→ 섹시하고 서구적임	.132	.052	2.735*
코높이	→ 섹시하고 서구적임	.182	.038	3.826**
피부결과 색	→ 편하고 따뜻함	.367	.052	7.268**
머릿결과 모양	→ 편하고 따뜻함	.127	.049	2.492*
단아하고 단정함	→ 전반적 아름다움	.854	.161	9.779**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 전반적 아름다움	-.235	.102	-4.406**
섹시하고 서구적임	→ 전반적 아름다움	.206	.075	5.175**

* $p < .05$ ** $p < .001$

입술모양'이 외모의 생김새를 평가할 때에는 고려되지만, 전반적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미인의 성 이 '큰 눈, 오뚝한 코, 도톰한 입술'에서 '얼굴의 형태나 턱선, 이목구비의 라인이 어떻게 생겼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성형외과 의사와 같은 얼굴 전문가

들의 진단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매일경제, 2009. 3.25).

응답자 성별에 따른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의 차이

응답자 성별에 따라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

가하는 특성 요인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 자극물 사진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의 성별을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극성별이 남성일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와 여성 응답자 모두에서 물리적 특성이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심리적 특성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

하는 구조를 가정하는 연구모형이 대체로 적합하였다(표 10).

남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의 남녀 응답자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표 11, 12), 여성들은 남성 얼굴에 대해 눈썹과 얼굴선을 통해 단정하고 흰칠함, 강하고 남성적임, 편하고 선해 보임 등의 심리적 특성을 지각하는데 비해 남성들은 남성에 대하여 코높이와 모양을 통

표 10. 남성 사진에 대한 응답자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

응답자	χ^2	df	p	RMR	GFI	AGFI	RMSEA
여성	13.012	8	.111	.036	.992	.919	.049
남성	11.170	8	.192	.031	.991	.910	.045

표 11. 남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응답자: 여성)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눈크기와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한	.301	.040	5.757**
얼굴선 → 단정하고 흰칠한	.154	.040	3.184*
피부결과 색 → 단정하고 흰칠한	.189	.060	3.677**
머릿결과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한	.255	.042	5.186**
얼굴선 → 앳되고 여림	.266	.064	4.260**
피부결과 색 → 앳되고 여림	.186	.096	2.809*
머릿결과 모양 → 앳되고 여림	.140	.068	2.200*
눈크기와 모양 → 강하고 남성적임	.259	.052	3.975**
입크기와 입술색 → 강하고 남성적임	.139	.059	2.358*
눈썹 → 강하고 남성적임	.220	.041	3.849**
피부결과 색 → 편하고 선해보임	.226	.090	3.446**
머릿결과 모양 → 편하고 선해보임	.256	.064	4.062**
눈썹 → 편하고 선해보임	.145	.048	2.465*
단정하고 흰칠함 → 전반적 아름다움	.509	.130	7.943**
앳되고 귀여움 → 전반적 아름다움	.171	.101	2.750*

* $p < .05$, ** $p < .001$

표 12. 남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응답자: 남성)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눈크기와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함	.250	.051	4.335**
코높이와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함	.207	.046	3.956**
피부결과 색 → 단정하고 흰칠함	.273	.060	5.193**
머릿결과 모양 → 단정하고 흰칠함	.243	.045	4.583**
얼굴선 → 옛되고 여림	.252	.064	3.666**
피부결과 색 → 옛되고 여림	.234	.088	3.292**
머릿결과 모양 → 옛되고 여림	.265	.063	3.857**
코높이와 모양 → 강하고 남성적임	.223	.068	3.001*
피부결과 색 → 편하고 선해보임	.290	.085	4.052**
머릿결과 모양 → 편하고 선해보임	.256	.061	3.701**
단정하고 흰칠함 → 전반적 아름다움	.866	.274	6.480**
옛되고 귀여움 → 전반적 아름다움	.175	.122	2.701*
편하고 선해보임 → 전반적 아름다움	-.254	.181	-2.782*

* $p < .05$, ** $p < .001$

해 단정하고 흰칠함, 강하고 남성적인 특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중요하게 지각하는 물리적 특성이 다르게 밝혀졌다. 또한, 남성의 전반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여성 응답자들은 단정하고 흰칠함, 옛되고 귀여움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응답자들은 이 두 가지 요인 외에 편하고 선해보임 요인이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흥미로운데, 여성들은 남성의 얼굴이 편하고 선해보이는

지 여부가 전반적 아름다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남성들은 인상이 편하고 선해보이는 남성 이미지를 잘생긴 얼굴 모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음 자극성별이 여성일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 자극물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특성이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심리적 특성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정하는 연구모형이 대체로 적합하였다(표 13).

표 13. 여성 사진에 대한 응답자 성별에 따른 모형 적합도

응답자	χ^2	df	p	RMR	GFI	AGFI	RMSEA	CFI
여성	6.111	7	.527	.016	.996	.953	.000	.999
남성	15.507	9	.078	.040	.989	.884	.060	.900

표 14.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응답자: 여성)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눈크기와 모양	→ 단아하고 단정함	.204	.050	3.828**
얼굴선	→ 단아하고 단정함	.228	.048	4.949**
피부결과 색	→ 단아하고 단정함	.294	.045	6.323**
머릿결과 모양	→ 단아하고 단정함	.260	.042	5.754**
입크기와 입술색	→ 단아하고 단정함	-.101	.038	-2.480*
눈크기와 모양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227	.058	3.562*
피부결과 색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81	.056	3.073*
눈썹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15	.045	2.119*
머릿결과 모양	→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142	.051	2.492*
얼굴선	→ 깜찍하고 귀여움	.184	.077	2.904*
피부결과 색	→ 깜찍하고 귀여움	.308	.072	4.816**
눈크기와 모양	→ 섹시하고 서구적임	.334	.063	4.882**
코높이	→ 섹시하고 서구적임	.158	.051	2.390*
피부결과 색	→ 편하고 따뜻함	.375	.066	5.730**
얼굴선	→ 편하고 따뜻함	.150	.071	2.304*
눈썹	→ 편하고 따뜻함	-.141	.054	-2.336*
단아하고 단정함	→ 전반적 아름다움	.818	.225	6.379**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 전반적 아름다움	-.182	.147	-2.240*
섹시하고 서구적임	→ 전반적 아름다움	.228	.109	3.753**

* $p < .05$, ** $p < .001$

응답자 성별에 따라 여성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물리적, 심리적 특성 요인을 비교해보면, 응답자가 여성일 때에는 심리적 특성 요인 중 ‘단아하고 단정함’과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을 설명하는 물리적 특성 요인이 남성보다 더 많은 반면, ‘깜찍하고 귀여움’과 ‘섹시하고 서구적임’ 요인을 설명하는 물리적 특성 요인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또한, 전반적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심리적 특성 요

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깜찍하고 귀여움’ 요인이 전반적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요인은 남녀 응답자 모두에게서 전반적 아름다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얼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데에 여성의 자신 있고 당당한 이미지는 부정적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14, 15 참조).

표 15.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응답자: 남성)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눈크기와 모양	→ 단아하고 단정함	.226	.064	3.790**
피부결과 색	→ 단아하고 단정함	.196	.060	3.390**
머릿결과 모양	→ 단아하고 단정함	.388	.058	6.101**
눈크기와 모양	→ 당당하고 자신감있음	.397	.076	5.299**
얼굴선	→ 당당하고 자신감있음	.163	.075	2.349*
눈크기와 모양	→ 깜찍하고 귀여움	.219	.094	2.660*
얼굴선	→ 깜찍하고 귀여움	.174	.093	2.275*
피부결과 색	→ 깜찍하고 귀여움	.200	.088	2.505*
눈크기와 모양	→ 섹시하고 서구적임	.346	.083	4.325**
얼굴선	→ 섹시하고 서구적임	.232	.082	3.137*
코높이	→ 섹시하고 서구적임	.200	.058	2.919*
피부결과 색	→ 섹시하고 서구적임	-.164	.077	-2.114*
피부결과 색	→ 편하고 따뜻함	.377	.086	4.747**
단아하고 단정함	→ 전반적 아름다움	.669	.131	9.809**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 전반적 아름다움	-.187	.120	-3.162*
깜찍하고 귀여움	→ 전반적 아름다움	.221	.125	3.196*
섹시하고 서구적임	→ 전반적 아름다움	.189	.105	3.566**

* $p < .05$, ** $p < .001$

결 론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하는 물리적·심리적 특성 요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특성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0대 남녀 사진 46장에 대하여 20대 남녀 대학생 461명이 평정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와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평가할 때 지각하는 물리적 특성 요인은 크게 7개 정도이며 남성과 여성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에 대해 눈이 크고 또렷하며 둥근 것을, 코는 높고 오뚝하며 얼굴선이 가름하고 작으며, 피부가 곱고 깨끗하며 하얀 것을 아름다운 특성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입이 크고 입술은 선명하고 도톰한 것을, 눈썹은 진하고 선명한 것을, 머릿결이 좋고 머리 모양이 단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지각하

었다. 둘째, 그러나 얼굴의 생김새를 통해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 요인은 여성과 남성에서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었다. 남성의 경우 ‘단정하고 흰칠함’ 요인에 깔끔하고 준수하며 자신감 있고 지적인 당당한 모습이 함께 요인을 이루고 있으나, 여성의 심리적 특성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요인은 지적이고 당당하며 야무진 여성의 모습으로 일 지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즉,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는 편하고 따뜻하며(1요인) 단아하며(3요인) 귀여운(5요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적이고 당당하며 자신감 있는 여성의 모습은 현대의 활동적인 커리어우먼의 이미지인 것이다. 남성의 경우 ‘당당하고 지적이며 자신감 있는’ 문항들은 ‘준수하고 흰칠함’(1요인)요인으로 묶여 여성과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단정하고 준수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형성하지만, 여성은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에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섹시함’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나타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현재 남성에 대해서는 ‘섹시함’이 하나의 독립적 요인으로 지각될 정도로 두드러진 특성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여성에 대해서는 섹시함을 중요한 아름다움의 특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의 얼굴을 통해 섹시함을 지각하는 것은 ‘서구적이고 시원하며 돋보이는 강한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에 대해서는 ‘서구적인’ 항목이 ‘편하고 선해보임’ 요인에 부(-)적으로 묶여 있어서, 서구적인 이미지가 여성과 다르게 편안한 느낌을 방해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네 번째로 남성의

심리적 특성 요인 중에서 ‘옛되고 여림’ 요인이 나타났는데, 문항을 보면 옛되고 청순하며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이다. 이런 특성은 전형적인 남성미를 나타내는 ‘강하고 남성적임(3요인)’ 요인과는 대비되는 특성들로서 과거에는 남성의 외모를 지칭할 때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용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아름다움 지각의 심리적 특성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나서 젊은 남성들의 변화된 남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얼굴을 통해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 요인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기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성 요인 역시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다. 남성의 경우 ‘단정하고 흰칠함’, ‘옛되고 여림’의 심리적 특성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설명하였고, ‘편하고 선해 보임’ 요인은 아름다움 평가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강하고 남성적임’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즉, 편안하고 선해 보이는, 소위 말하는 좋은 인상의 소유자가 오히려 미남이라고 평가받는 데에는 불리하며, 강한 남성의 이미지 역시 잘생긴 얼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남성의 전반적 아름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요인은 ‘단정하고 흰칠함’(.747)인데, 이런 특성을 지각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은 ‘눈크기와 모양(.262)’, ‘머릿결과 모양(.246)’, ‘피부결과 색(.220)’, ‘얼굴선(.139)’, ‘코높이와 모양(.139)’이며, ‘눈썹’과 ‘입크기와 모양’ 요인은 단정하고 흰칠함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남성의 외모에서도 머리모양과 머릿결, 얼굴선, 피부결과 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식과는 달리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여성의 경우는 ‘단아하고 단정함’,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섹시하고 서구적임’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성 요인이며, ‘감쪽하고 귀여움’과 ‘편하고 따뜻함’ 요인은 아름다움 평가에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여성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단아하고 단정함’(854) 요인인데, 이런 이미지를 느끼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들은 ‘머릿결과 모양’(298), ‘피부결과 색’(260), ‘눈크기와 모양’(207), ‘얼굴선’(163), ‘코높이’(086)로 여성 외모의 물리적 특성에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머릿결과 모양, 그리고 피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눈크기와 모양’은 여러 심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으로 드러나서, 단아하고 단정함,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 섹시하고 서구적임, 감쪽하고 귀여움 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 아름다움의 세 번째 영향요인인 ‘섹시하고 서구적임’(206) 이미지를 형성하는 물리적 특성으로는 다른 요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코높이’(182)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서구적인 얼굴 이미지의 가장 큰 특징이 높고 오뎅한 코인데, 이런 특성은 여성을 시원하고 돋보이는 얼굴로 지각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보인다. 일곱째, 여성에 대한 다소 의외의 결과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음’(235) 요인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을 들 수 있다. 현대적인 여성미를 언급할 때 당당하고 자신 있는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인 특징으로 강조되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특성이 여성 얼굴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지각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으로는 ‘눈크기와 모양’(297)이 두드러진 요소이며, ‘눈썹’(100)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눈과 눈썹을 통해 강한 인상과 지적이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의 특징과는 다소 상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남녀의 얼굴의 전반적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세부 요소들이 평가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즉, 남성들은 여성의 얼굴에 대하여 감쪽하고 귀여움 요인을 전반적 아름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여성 얼굴에 대하여 감쪽함 요인이 전반적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전반적 아름다움 지각에서도 여성응답자와 남성응답자의 평가는 차이가 있어, 여성응답자들은 단정하고 흰칠함과 앳되고 귀여움만이 전반적 아름다움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남성들은 두 요인 외에 편하고 선해 보임(-) 요인도 남성의 전반적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여성에 대하여 귀여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성이며, 또한 남성들은 선하고 편한 인상을 가진 남성을 비매력적으로 보는데 비해, 여성들은 선한 인상에 대해서는 아름다움과 관련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하고 따뜻함’ 혹은 ‘편하고 선해 보임’ 요인은 전반적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약한 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선하고 편해 보이는 인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이 인물의 아름다움 지각에는 그다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여성미를 언급할 때 당당하고 자신 있는 커리어우먼의 이미지, 남성의 전통적인 모습인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 역시 현재 20대 남녀가 각 성별에 대하여 인식하는 아름다운 얼굴의 이미지와는 상반되거나 관련이 없다는 결과여서, 젊은이들의 변화된 미(美)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아름다움 지각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물리적 특성을 지각하는 요인은 거의 유사하지만 심리적 특성 요인에서는 차이가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세분화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섹시함과 단아함, 그리고 당당함과 귀여움 등 양립하기 어려운 미(美)적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차원은 남성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요인들 중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세부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단정하고 흰칠함이 가장 중요하고, 여성의 경우는 단아하고 단정함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전형적인 아름다움의 요소는 남녀 모두 단정하고 깔끔하며 세련된 모습이며, 여기에 남성은 자신감 있는 당당함이 가미되고, 여성은 우아하고 청순한 느낌이 더해지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한계점 및 추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얼굴 사진에 대한 아름다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아름다움 지각의 세부적 요인들, 특히 심리적 특성 요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데 매우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움 지각 요인들이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남성 광고모델은 ‘꽃남’의 주인공 이만호이지만,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남성 모델은 전형적 미남배우인 ‘장동건’이라는 결과를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남, 미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름다움 지각의 물리적 특성요인, 심리적 특성 요인이 동일한 자극물에 대해서 연령대를 달리하여 30대 이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아름다움 지각의 구성 요인은 동일할지라도 전반적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인에서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차이를 발견함으로써 연령대별로, 시대별로 아름다움의 결정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얼굴 사진으로 한정하여 아름다움의 요인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반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단지 얼굴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며, 전체적인 모습, 즉 키와 체격,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이 총체적으로(gestalt) 조화됨으로써 지각되는 것이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특성 지각을 연구하는 시작 단계로서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얼

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얼굴 그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몸의 선(바디라인)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외모의 아름다움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에 사용된 사진 자극물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얼굴 이미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각하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얼굴 사진을 이용하였는데, 표준화된 얼굴 사진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증명사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증명사진은 가장 공식적인 얼굴 모습(formal face-look)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요소 중 특히 단정하고 정숙한 이미지가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자극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여러 심리적 특성, 예컨대 섹시함, 당당함, 자연스러움 등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단정하고 단아함 이미지가 전반적 아름다움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모습이 모두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눈크기와 모양은 단아하고 단정한 이미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 감직하고 귀여운 이미지, 섹시하고 서구적인 이미지 등 거의 모든 심리적 특성을 지각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눈 모양이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우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Langmeyer와 Shank(1994)는 아름다움 전문가들(운동선수, 화장품 컨설턴트, 그래픽 아티스트, 음악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업자, 철학자, 사진가, 화가, 수학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인간의 아름다움 차원을 추출한 바 있는데, 그들은 아름다움을 신체적인 것과 비신체적인 것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신체적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얼굴이나 몸의 비율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우아하고 당당한 풍채와 같은 특성들이며, 비신체적 아름다움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것으로 신체와 상관없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아름다움 요소 중 외적인 측면에만 한정하였지만, 정신적 측면은 아름다움 지각의 요소를 체계화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즉,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적인 측면인 외모(body)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며, 내적인 측면인 심성의 아름다움(soul)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동양의 몸철학에서 말하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는 심성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업 (2008). AMOS A to Z: 논문작성 절차에 따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학현사.

- 김한경, 박수진, 정찬섭 (2004). 아름다운 얼굴의 감성적 특징. *한국감성과학회지*, 7(1), 23-28.
- 김혜숙 (1993). 신체 매력이 대인지각과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46-62.
- 남승진 (2002). Lookism, 현대인의 뷰티 이데올로기. *한국 소비자·광고 심리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21-36.
- 매일경제 (2009. 03. 25). 여름철 몸매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야.
- 박수진, 김한경, 한재현, 이정원, 김종원, 송경석, 정찬섭 (2001). 한국인 20대여성 얼굴의 수치 및 감성구조 분석.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4-81.
- 박수진, 한재현, 정찬섭 (2001). 한국인 20대여성 얼굴의 감성모형. *한국감성과학회지*, 4(2), 47-55.
- 서란숙 (2007). 시대별 한국여성의 미인상과 현대미용 성형 외과적 미인형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3), 1404-1412.
- 성영신, 박은아, 이주원, 김운섭 (2008). 아름다움의 심리적 권력: 성별, 영역별 미권력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3), 461-488.
- 성영신, 박은아, 서현숙 (2008). 아름다움(美) 평가의 심리적 차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소비자 및 광고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03-120.
- 윤성욱, 설상철, 황경미 (2003). 종업원의 매력성과 성별이 종업원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8(1), 55-78.
- 이경성 (2002).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의 얼굴인상을 어떠한 차원들로 지각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2), 51-74.
- 이경성, 한덕웅 (2003). 젊은 남성들은 어떤 얼굴모습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73-83.
- 이수정, 유재호 (2001). 인상형성 준거에 근거한 20대 한국여성 얼굴사진 DB구축.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21-136.
- 위성신, 함기선, 이재웅, 조용진 (1981).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8(2), 283-289.
- Barocas, R., & Karoly, P. (1972). Effects of physical appearance on social responsiveness. *Psychological Reports*, 31.
- Berry, D. S., & Miller, K. M. (2001). When boy meets girl: attractive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in opposite-sex intera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62-77.
- Buss, D. M., & Schmi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5). Your body, yourself: a psychology today reader survey. *Psychology Today*, 19(7), 22-26.
- Cash, T. F., Winstead, B. A., & Janda, L. H. (1986). The recen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Langlois, J. H., & Roggman, L. A. (1990). Attractive faces are only average. *Psychological Science*, 1(2), 115-121 in 올리히 렌츠(2008). 아름다움의 과학: 미인 불패, 새로운 권력의 발견. (박승재 역). 서울: 프로네시스. (원전은 2006년에 출판).

- Langlois, J. H., Kalakanis, L., Rubenstein, A. J., Joseph, W. Benoy (1982). The credibility of physically attractive communications: a review. *Journal of Advertising*, 11(3), 15-24.
- Larson, A., Hallam, M., & Smoot M. (2000). Maxims or myths of beauty?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390-423.
- Langmeyer, L. & Matthew Shank (1994). Managing beauty-products and people. *Journal of Products and Brand Management*, 13(3), 27-37.
- Reis, H. T., Wheeler, L., Spiegel, N., Keris, M., Nezelek, J., & Perri, M (1982). 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interaction, II: Why does appearance affect soci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79-996.
- 1 차원고접수 : 2009. 11. 11.
심사통과접수 : 2009. 12. 10.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8.

The Elements of Beauty in Male and Female: Focused on th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Facial Beauty

Eun-A Park

Hyun-Sook Suh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lements of male and female's beautiful face. To examine the factors to perceive one's overall beauty, we made eighty five item adjective checklist which comprised to evaluate physical elements of face and psychological elements of the face. Four hundred and sixty one university male and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to rate 46 females and 46 males faces' overall beauty and to evalua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of the photograph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elements of face perception are same seven factors in male and female. Second, the psychological elements of face perception are different with male and female. Male's psychological elements are four factors which are handsome, cute and kind-looking, masculine, and natural. Female's psychological elements are five factors which are warm, sexy, elegant, intelligent, and cute. Third, determinant factors for overall face beauty are handsome and cute factors in male, sexy, elegant, intelligent factors in female. Especially, masculine factor in male isn't important for overall face beauty, and cute and warm factors isn't important for female's overall face beauty. This research shows that people evaluate overall face beauty through psychological factors which are perceived physical elements, and key important factors for overall face beauty are different in both sexes.

Key words : Face, appearance, physical elements of face, psychological elements of face, male beauty, female beauty

부록 1. 물리적 특성 형용사에 대한 평가 결과

번호	물리적 특성	평균 (표준편차)			
		적질성 평가 (예비조사)		요소 평가 (본조사)	
		여	남	여	남
1	눈매가 또렷하다	4.17(.95)	3.87(.92)	4.69(1.45)	4.34(1.36)
2	눈썹이 선명하다	2.90(.98)	3.65(1.01)	4.35(1.44)	4.83(1.51)
3	눈썹이 진하다	2.69(1.05)	3.78(1.14)	4.18(1.34)	4.81(1.60)
4	눈 미간이 좁다	3.06(1.19)	2.73(1.07)	3.33(1.28)	3.85(1.37)
5	눈이 날카롭다	3.65(1.14)	3.14(1.08)	3.27(1.42)	3.15(1.53)
6	눈이 동양적이다	2.71(1.25)	2.69(1.06)	4.34(1.54)	4.40(1.53)
7	눈이 등글다	3.23(1.03)	3.09(1.13)	4.31(1.48)	3.70(1.58)
8	눈이 또렷하다	3.26(1.27)	3.54(1.04)	4.70(1.38)	4.07(1.49)
9	눈이 선명하다	4.09(0.80)	3.62(1.14)	4.72(1.43)	4.36(1.45)
10	눈이 크다	3.76(1.02)	3.91(0.92)	4.60(1.39)	4.10(1.54)
11	머릿결이 좋다	4.28(0.89)	3.31(1.04)	4.70(1.43)	3.76(1.32)
12	목이 가늘다	3.87(1.01)	2.67(1.07)	4.79(1.37)	3.80(1.41)
13	목이 길다	2.67(1.13)	2.85(.88)	4.46(1.26)	3.46(1.27)
14	얼굴이 작다	2.94(1.12)	3.52(1.11)	3.91(1.35)	3.86(1.55)
15	얼굴형이 가름하다	4.28(0.99)	3.25(1.03)	4.46(1.53)	4.20(1.56)
16	이마가 넓다	3.04(1.02)	3.05(1.01)	4.24(1.28)	4.18(1.48)
17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3.65(0.93)	4.25(.91)	4.44(1.36)	4.57(1.42)
18	이목구비가 시원하다.	4.23(0.92)	3.82(.95)	4.66(1.44)	4.21(1.51)
19	입술이 도톰하다	3.19(1.30)	3.27(1.04)	4.02(1.45)	3.92(1.50)
20	입술이 붉다	2.45(0.93)	3.54(.97)	4.82(1.25)	4.10(1.29)
21	입술이 선명하다	3.77(1.00)	3.42(1.00)	4.75(1.26)	4.25(1.29)
22	입이 크다	4.41(0.76)	2.74(1.13)	4.38(1.44)	4.05(1.41)
23	코가 날카롭다	4.08(0.86)	2.77(.93)	3.48(1.38)	3.35(1.33)
24	코가 높다	3.47(1.15)	3.69(.97)	4.05(1.41)	4.21(1.35)
25	코가 오뎅하다	3.60(1.31)	3.84(1.04)	4.25(1.38)	4.42(1.32)
26	코가 크다	4.27(0.94)	3.18(1.11)	4.18(1.35)	4.35(1.34)
27	턱선이 가름하다	4.03(1.04)	3.56(1.09)	4.29(1.53)	4.01(1.57)
28	피부가 곱다	3.81(0.96)	3.56(1.15)	4.85(1.34)	4.39(1.32)
29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4.37(0.94)	3.33(1.13)	3.97(1.53)	3.79(1.32)
30	피부가 깨끗하다	2.79(1.06)	3.85(1.09)	4.76(1.34)	4.79(1.29)
31	피부가 좋다	3.72(1.06)	4.02(.91)	4.74(1.27)	4.76(1.25)
32	피부가 하얗다	3.68(1.06)	3.81(1.01)	3.72(1.44)	3.64(1.43)
33	헤어스타일이 단정하다.	4.29(0.81)	4.00(.91)	5.25(1.48)	4.94(1.43)
34	헤어스타일이 자연스럽다.	3.67(1.07)	3.68(.93)	4.66(1.41)	4.06(1.49)

부록 2. 심리적 특성 형용사에 대한 평가 결과

번호	심리적 평가	평균(표준편차)			
		적절성 평가 (예비조사)		요소 평가 (본조사)	
		여	남	여	남
1	강하다	2.60(1.08)	3.55(1.12)	3.95(1.69)	3.32(1.49)
2	개성있다	3.60(0.82)	3.71(0.82)	3.21(1.57)	3.26(1.53)
3	고집세다	2.40(0.91)	2.69(1.19)	4.12(1.57)	4.04(1.77)
4	귀엽다	4.08(0.83)	3.53(0.99)	3.56(1.63)	3.32(1.65)
5	깔끔하다	3.96(0.87)	4.15(0.86)	4.90(1.32)	5.01(1.29)
6	깜찍하다	3.95(1.05)	2.38(1.10)	3.10(1.50)	2.32(1.44)
7	단정하다	3.99(0.76)	4.06(0.86)	5.19(1.37)	5.05(1.28)
8	당당하다	3.74(1.06)	4.05(0.89)	4.86(1.32)	4.64(1.28)
9	도발적이다	3.13(1.15)	2.39(1.11)	3.06(1.65)	2.18(1.36)
10	돋보인다	3.46(0.94)	3.58(0.95)	3.61(1.43)	3.32(1.30)
11	따뜻하다	3.44(1.24)	3.74(1.08)	3.87(1.38)	3.98(1.31)
12	발랄하다	4.04(0.86)	2.84(1.11)	4.19(1.53)	3.13(1.52)
13	밝다	3.76(1.15)	3.68(0.99)	4.62(1.34)	4.34(1.44)
14	부드럽다	3.71(1.04)	3.92(0.90)	4.09(1.42)	4.33(1.35)
15	생기있다	4.06(0.91)	3.71(1.13)	4.46(1.42)	4.23(1.33)
16	샤프하다	2.76(1.22)	3.76(1.21)	3.52(1.55)	3.64(1.42)
17	서구적이다	3.24(1.05)	2.89(1.01)	3.44(1.66)	2.73(1.55)
18	선해보인다	3.72(0.88)	3.71(0.87)	4.32(1.51)	4.58(1.53)
19	세련되다	3.94(0.91)	3.91(0.98)	4.33(1.43)	3.80(1.36)
20	섹시하다	3.67(1.13)	2.86(1.29)	3.06(1.62)	2.27(1.39)
21	순수하다	3.81(1.04)	3.39(1.10)	3.75(1.40)	3.61(1.41)
22	시원하다	3.41(1.08)	3.51(0.94)	4.07(1.53)	4.03(1.41)
23	신선하다	3.42(1.20)	3.11(1.08)	3.32(1.49)	3.15(1.39)
24	옛되다	3.63(0.95)	3.16(0.99)	2.99(1.55)	3.30(1.70)
25	야무지다	3.31(1.12)	3.21(1.11)	4.61(1.45)	3.95(1.45)
26	야하다	2.44(1.24)	2.31(1.21)	2.45(1.57)	1.70(1.28)
27	어울린다	3.46(1.08)	3.49(0.99)	4.36(1.33)	4.08(1.29)
28	여리다	2.92(1.00)	2.51(0.99)	3.31(1.52)	3.26(1.59)
29	우아하다	3.95(0.99)	2.33(1.22)	4.05(1.42)	2.27(1.40)
30	자신감있다	3.90(1.11)	4.00(1.01)	4.86(1.39)	4.70(1.27)
31	자연스럽다	3.64(1.03)	3.71(1.05)	4.20(1.41)	4.05(1.40)
32	준수하다	2.94(1.17)	3.99(1.12)	4.25(1.41)	4.71(1.28)
33	지적이다	3.74(1.12)	3.73(0.99)	4.71(1.37)	4.07(1.42)
34	참하다	4.01(0.83)	3.16(1.24)	4.79(1.50)	3.83(1.51)
35	청순하다	4.24(0.91)	2.44(1.37)	4.13(1.52)	2.71(1.45)
36	편하다	3.49(1.00)	3.59(0.94)	3.74(1.53)	4.01(1.46)
37	흰칠하다	2.99(1.39)	4.14(1.11)	3.66(1.63)	4.40(1.43)
38	느끼하다(남)	-	2.68(1.39)	-	3.88(1.57)
39	남성적이다(남)	-	3.80(0.99)	-	3.80(1.41)
38	단아하다(여)	3.94(0.998)	-	4.57(1.38)	-
39	아담하다(여)	3.42(1.000)	-	3.42(1.56)	-
40	여성스럽다(여)	4.14(1.028)	-	4.94(1.37)	-